"전주에 드론산업진흥원 유치"

민주 김윤덕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4일 드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론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됐고, 20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오는 2024년 8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한단계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드론 활용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드론시스템 기술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드론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의 지원 등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드론산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매김할 것으로, 이제 국가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진흥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전주는 드론핵심산업인 탄소, 수소산업 등과 산업연계가 가능해 최적의 장소이므로 법을 통과시키고 전주에 드론산업진흥원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드론 제조업 유통산업을 육성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 매김해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조선분야 탄소중립 성장기반 확보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

전북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가 산업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 조선분야 탄소중립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4일 산업부 2022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미래기술선도형) 공모에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본부장 조민호)가 참여하게 될 이 사업은 총예산 17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저탄소 및 무탄소 대체연료 선박 관련 연구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조선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실증플랫폼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조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LNG, LPG, 바이오디젤 및 암모니아,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대체연료별 연료 저장설비, 공급장치 및 제어시스템 등 장비 24종을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엔진 4대 핵심기술인 △엔진 성능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연료 액화저장 기술, △연료 공급 기술 등에 대한 시험평가 설비를 구축도 병행한다.

대체연료 엔진 10대 핵심 부품 기술에 대한 실증 기반도 함께 구축하며, 이 모든 장비 및 실증기반은 3층 규모의 시험 연구동(건축면적 399평)에 담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친환경 선박관련 핵심기자재 실증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인프라를 확보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중인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군산) 내에 1.6MW급 듀얼퓨얼(디젤+LNG) 엔진 및 각종 측정 장비 구축을 완료했다.

또, 지난해 시작된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실증 기반'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저속·중속 엔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육상 시험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까지 연계되면 친환경 대체연료와 관련된 저속·중속·고속 엔진 등 모든 엔진의 실증이 가능하게 돼 도내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기반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조선산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초코파이 먹고 투표 꼭"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코파이 빵에 기표문양을 새겨 전시 판매하고, 투표참여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2030세대 청년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첫출마지원단이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버스킹존에서 유세를 펼쳤다.

'청년 정치, 청년이 직접'

지선 첫 출마 청년 후보자 지원 '첫출마지원단'

전북대 버스킹존서 유세… 투표 참여 · 지지 호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2030세대 청년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첫출마지원단이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버스킹존에서 유세를 펼쳤다.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전주시 아지역구(진북, 금암1·2동, 인후1·2동) 최서연(25) 후보를 비롯해 김세혁(전주시 비례, 29), 이성국(전주시 사, 28), 신유정(전주시 타, 22) 후보가 유세에 참여했다.

최서연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면서 "선거때면 소환되는 이벤트성 청년 정치가 아닌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는 투표 참여다. 청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지지와 응원을 필요하다"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신유정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가 바꿔나가겠다"면서 "우리동네 골목투어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과 청년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우리가 살고있는, 살아갈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자체등급분류 제도 사각지대 없어지나

민주 양경숙 의원, 게임산업 일부개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가 직접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포함한 총 10개 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개발사에 해당 앱에 관한 설문을 해 등급을 매긴다.

개발사가 스스로 해당 앱에 대한 해당사항을 체크하면 앱마켓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등급이 잘못 분류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의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유효한 등급분류가 이뤄질 때까지의 공백이다.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할 경우, 원칙상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되는 불법게임이지만, 기존 이용자들도 이용은 가능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 이용에의 제공을 중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담았다.

또,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유호상 기자

"우리가 제시한 정책 도정 반영 힘쓸 후보"

도내 청년농업인 1111명

김관영 도지사 후보 지지

정책협약식 · 간담회 개최

전북도 미래먹거리 선도 공약의 중심에 있는 청년농업인 1111명이 지난 23일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후보 캠프에서 김관영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정책협약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관영 후보와 청년농업인들은 △청년농업인이 농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했으며, 또한 △지역 내 농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지원사업 확대 노력,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최한국 청년농업인 대표는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우리가 제시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도를 농생명 수도로 만드는 것이 전북도지사의 책무다. 전국의 농업과 관련된 인재들이 전북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돼 이곳 전북도에서 같이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롯해 청년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24일 전북대학교를 찾은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후보 "청년일자리 해결 총력"

전북대 찾아… 사전투표 독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4일 전북대학교를 방문,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김 후보는 대학로를 순회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고민이 많은 청년들과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지 않고 정착할 수는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제1호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해서 전북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관영 후보는 전북벤처기업회, 12개 전북도 장애인단체, 전북다문화가정 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주요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유호상 기자

"가뭄대비 종합 대비책 마련 나서야"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가 가뭄에 따른 평년대비 강수량 부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가뭄대비 종합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미 인근지역에서는 가뭄을 대비해 하천 내 흐르는 유수를 가두고 하천굴착,가물막이 작업등 가뭄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용수공급시 농업용수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윗논 물꼬관리,요일제 용수공급 준수 등을 설정하고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비책의 일환으로 "순창군은 예비비등을 긴급 투입해 공용 관정확보 및 가뭄대비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과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후보는 또,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만일 모를 사태에 대비해 조속히 대책반을 구성하고 단계별(1: 주의단계, 2: 경계단계, 3: 심각단계) 매뉴얼을 설정,가뭄대비 종합대비책 마련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라고 발빠른 움직임을 호소했다. /유호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